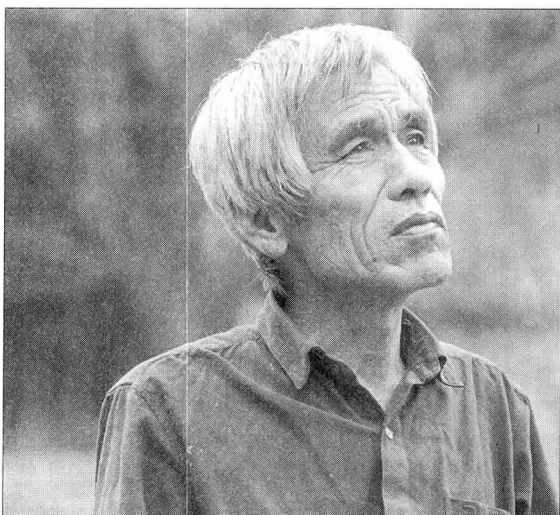


# 촌로의 소탈한 세상살이 이야기

나무와 인간을 사랑하는 전우익씨



**정감있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성마른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곱씹어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전우익씨(사진/주명덕)

“책을 내놓고 보니,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친구들 보기도 민망하고... 뭐 그렇습니다.”

《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93년 5월 출간)에 뒤이어 그 후속편인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옵디까》(현암사)를 펴낸 전우익씨(70·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심드렁하다.

“농사짓는 틈틈이 여기저기에 띄웠던 편지 글들입니다. 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형난옥(현암사 주간) 여사가 이렇게 책으로 엮어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알릴 일이 있고, 몇몇이만 알 일이 있는 법인데...”

**소탈하고 질박한 철학**

그가 지기(知己)들에게 편지들을 보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물을 퍼내지 않으면 샘이 말라버리듯, 편지를 쓰지 않으면 생각까지 말라버릴지도 모른다”(《혼자만 잘 살든 무슨 재민겨》본문 중에서는) 여려 때문이었다. 그런 까닭에, 그 편지들마다에는 전우익씨의 소탈하고 질박한 철학과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다.

1센티미터 자라는 데 50년이나 걸리는 소나무 이야기, 못을 한 번 박고 세 번 절하는 목수 이야기, 근근이 살아가는 풍각쟁이 이야기 등은 좋은 집과 자동차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또한 그 이야기와 관련한 한 노인의 단상을 접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흙과 물, 공기와 태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할 자연을 배운다.

“옛 어른들의 세상살이가 현재 우리의 세상살이보다 훨씬 더 슬기로웠습니다. 그분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섭리를 거스름으로써 풍요를 누리는 대가로 치르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이젠 세상이 뒤바뀌어 부지런하면 안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주위를 둘러보는 법이 없는 현대인들은 부지런을 떨수록 자연에 더 큰 해악을 입힌다. 마당에 제초제를 뿌리고 행주를 화학세제로 비벼빨고 나서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해졌노라고 좋아하고, 부지런히 화학비료를 뿌린 덕에 생산량이 늘었노라고 흐뭇

해 한다. 전우익씨는 주름살이 깊게 패인 이마를 찌푸리며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세계’를 가지라고 권한다. 그럼으로써 ‘세상살이의 이치’와 ‘잘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 품은 깊은 연민**

“나이도 있고 해서, 요샌 힘이 덜 드는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콩을 좀 심었죠. 그리고 20여 종의 묘목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묘목 가운데서 몇 년 사이에 실익을 볼 수 있는 과실수는 한 그루도 없다. 모두가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이 지난 후에야 제몫을 하게 될 나무들이다. 그 어린 묘목들을 그는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과묵하고 거짓이 없는 나무야말로 어쩌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지기일지도 모른다.

“사진을 찍자구요? 전 사진같은 건 안 찍습니다. 옛 어른들이 사진을 찍으면 혼이 나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옛 어른 말씀에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신문이며 텔레비전에 늘상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들 혼이 나간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전우익 노인의 통명스런 대답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심드렁해하는 이유를, 아니 이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깊은 ‘연민’을 어렵게나마 감지할 수 있었다.

—한동림 기자

**표지**

## 책표지에 멋을 담았던 선조들의 정서

영남대 박물관의 능화판특별전

‘책판’으로도 불리는 능화판특별전(학교재 8월 18일~31일)은 멋을 추구했던 우리 조상의 삶의 정서를 그대로 보여준다. 능화판이란 책 겉장에 아름다운 무늬를 박아내기 위한 목판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능화판은 한권의 책에도 실용과 멋을 겸하는 수준높은 공예문화가 절게 배어 있음을 나타낸다.

**문자·식물·곤충·동물 무늬 등 다양**

필통, 연적, 벼루 같은 문방구나 능화판 등에 나타나는 형태미와 문양은 조선시대 삶의 일반적인 정서를 드러낸다. 책을 실로 묶어 제본했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책표지는 튼튼하면서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치장을 하게 된다. 두툼한 백면지에 치자나 비자, 쪽물을 들인 고운 색지를 능화판 위에 놓고 밀랍을 칠한 뒤 밀돌로 힘껏 문지른다. 능화판에 새겨진 각각의 문양이 색지에 그대로 요

철돼 돌을무늬가 새겨지면 책의 품위를 돋우는 격조높은 표지가 완성된다.

이같은 책판문양은 여러가지 장식무늬를 보여주는데, 책의 포장을 위한 것이므로 자연히 추상적인 형태의 연속무늬로 나타난다. 우선 제일 많은 유형을 보이는 기하학적 사방연속무늬로는 만자(卍字), 완자(完字), 그리고 마름모꼴 사방연속무늬라는 뜻의 능자(菱字)무늬 등이 있다.

또 수(壽), 복(福), 강(康), 녕(寧), 부(富), 다남(多男) 등의 문자를 사방연속무늬의 바닥 위에 크게 박은 문자무늬도 있다. 꽃, 나무, 열매의 식물문양은 주로 연꽃이나 국화, 모란, 매화 등을 다양하게 표현해낸다. 복숭아, 석류, 땃잎 무늬도 보인다.

그밖에 나비나 박쥐 같은 곤충, 동물문양도 있는데 나비는 흔히 국화무늬와 함께 나타나고, 용이나 학은 구름무늬와 어우러진



색지를 능화판 위에 놓고 밀랍을 칠한 뒤 밀돌로 힘껏 문지르면 각각의 문양이 도드라지듯 새겨진다. (학교재 전시장 모습)

다. 특이하게 쌍룡문(雙龍紋), 운룡문(雲龍紋)의 책판은 궁중에서 퍼내거나 궁중소장의 서화첩 포장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능화판 무늬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영남대 유흥준 교수(한국미술사)는 ‘변형과 균제의 미학’으로 파악한다.

**‘실용’과 ‘멋’의 조화**

“책은 사대부 문화의 산물이고 사대부들은 검소와 질박함의 가치를 중존해왔기 때문에 책의 포장은 화려하게 드러남이 아니라 은은하게 비치는 점잖은 문양을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지

도 모른다. 그래서 능화판 무늬에 멋스러운 듯 절제의 미가 서려 있는 것은 마치 사랑방 가구의 문갑이나 사랑탁자의 간결미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멋쟁이 벼루와 필통의 세련미와도 통하는 바가 있다.”

이번에 전시된 능화판 원판 10여점과 탁본 50여점은 영남대 박물관(관장 박현수)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 가운데 능화판만 선보인 것으로, 서울전시회가 끝난 후 곧이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영남대박물관(053-810-3622)에서 대구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